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前號에서 계속〉

4.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기록하자

링컨은 모자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게 했다. 링컨의 모자는 '움직이는 사무실'이었다.

슈베르트는 마음 속에 항상 아름다운 악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닿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기록하였다.

어느 때는 식당의 식단표에, 어느 때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기록했다.

세계의 뛰어난 발명인들은 모두 '기록광'들이었다. 기록하지 않고 훌륭한 발명인이 된 경우는 없다.

기록은 후일에 발명의 재료가 되는 것으로, 기록할 때는 '아주 기발한 데!'하고 생각하나 시간이 흐르면 자꾸자꾸 결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결점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그것은 고칠 아이디어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중 H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머리맡에 2대의 녹음기를 두고 생각난 것과 꿈에 본 것을 그 자리에서 녹음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떠오른 급싸라기 같은 아이디어를 아무 미련없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H씨는 잠자리의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연결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종업원 2여천명의 중견기업 사장 Y씨도 기록으로 시작했다.

Y씨는 항상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걷고 있을 때나,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결실을 맺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많은 발명을 하게 되었고, 이 순간도 발명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Y씨의 발명품 종이비누와 환풍기등은 뉴욕 및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금상을 수상, 많은 량이 수출되고 있다. 특히 그의 발명품 TV 모니터는 미국 및 일본에 이은 세계 3번째의 첨단 발명품인데, 이 또한 기록이 밑거름이었다고 한다.

발명인이 되려면 기록하라.

5. 이것이 바로 특허다

언뜻 보기에 별것 같지도 않고, 이것이 무슨 발명특허품이냐고 생각하기 쉬운 철조망이 미국의 13세 소년 목동을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 놓았다.

목동 소년 조셉이 가끔 탄전을 피우다보면 양들은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농장을 망가뜨렸다.

목동 조셉은 그때마다 주인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조셉은 실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양들이 넘어가는 울타리는 장미넝쿨의 울타리가 아니라 철사만 둘러친 울타리였다.

양들이 장미넝쿨의 가시를 무서워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조셉은 대장간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철사 군데군데에 가시철사가닥을 넣어가면서 새끼처럼 꼬아 울타리에

66 종업원 2천여명의 중견기업 Y사장도 기록으로 시작했다.

그는 항상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걷고있을 때나 닦치는대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했다. 발명인이 되려면 기록하라.

99

돌렸다.

성공이었다. 양은 단 한마리도 철조망을 넘어가지 못했다. 목동 조셉부자는 목장 주인의 도움으로 즉시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리하여 철조망이 탄생되었다.

이 철조망은 처음에는 목장 주변과 가정의 울타리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지자 세계 각국에서 국경선용으로 사용되어 조셉부자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조셉이 특허권 시효가 끝날 때까지 세계 각국에서 받는 로열티(특허권 사용료)는 미국에서도 이름난 계리사 11명이 1년간 계산해도 다 계산하지 못한 거액이었다고 한다.

이같은 실화는 국내외 포함 2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발명이란 것도 사실은 별게 아니다. 철조망처럼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발명인이 되자. 발명은 곧 재산이다.

6. 발명은 취미로 하자

발명은 직업보다는 취미로 하는 것이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다시말해 발명에 미쳐 생활까지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취미 생활로 발명을 하여 성공한 경우도 수없이 많다.

‘힐튼’은 예술가이면서도 증기선을 발명하였고, 농축 오렌지 주스를 발명한 사람은 대학교수인 ‘스탈’이었다. 또 ‘호이트니’는 교사였는데



면 방직기를 발명했고, 철재의 안전하고 튼튼한 찬장을 발명한 사람은 교회목사인 ‘디크’였다.

이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전조등을 발명한 사람은 ‘저 강은 알고있다’등 수많은 영화를 감독한 Y씨였고, G씨는 비즈니스맨이면서도 세계 최초로 인초인형을 발명했다. 또 K씨는 건축사이면서 아이덴트를 발명했고, 육군장교였던 C씨는 아크릴 무늬 전사방법을 발명했다.

이밖에도 B씨는 회사원이면서 지폐 계산기를 발명했다.

이처럼 발명이 직업도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세계적인 발명을 한 사람은 국내외 포함 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아이디어 개발이나 발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겁을 먹거나 아예 생각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발명인의 꿈을 키워라.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 <계속> <王>